

남해군, 독일마을에 '독일식 청년마켓' 문 연다

2023-08-08 08:50 경남CBS 송봉준 기자 |

핵심 요약

도르프 청년 마켓, 9월 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참가비 무료, 8월 21일까지 남해지역 셀러 및 청년 셀러 모집



2023 도르프 청년마켓에 함께 할 셀러를 찾습니다



플리마켓 셀러모집

모집기간 '23.8.4. (금)~21. (월)18:00까지 ※08.24(목) 결과발표

남해군청 제공

경남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첫 시범 운영하는 도르프 청년 마켓이 오는 9월 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독일마을 광장에서 열린다고 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남해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도르프 청년 마켓은 경남도와 남해군, 남해관광문화재단이 함께 손잡고 진행한다.

이번 도르프 마켓은 남해군내 인기 있는 지역 상품을 독일마을 광장에서 한 번에 만날 수 있게 하는 작은 마켓이자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예비청년창업자에게 기회를 주는 데뷔 마켓이기도 하다고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설명했다.

도르프 마켓은 지역 셀러(일반 셀러)와 청년 셀러로 나뉘어 모집한다. 창작상품, 수공예품, 먹거리, 특산품 등을

판매하거나 자신이 가진 재능을 활용한 문화 체험 운영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청년 셀러의 경우 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되 남해군 청년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 45세까지로 제한을 두었으며,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1년 이내 개설자로 한정한다. 모집기간은 8월 21일까지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더불어 판매대와 테이블보, 의자1개, 공통의 앞치마 등을 제공한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파독 광부·간호사의 도전정신이 스며있는 곳이 바로 이곳 남해 독일마을"이라며 "독일마을 광장이 오늘날 새로운 꿈을 꾸는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마켓이자 기회의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르프 청년 마켓에서 여러분의 처음 마음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 기사 주소: <https://www.nocutnews.co.kr/5990693>